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552-810 FAX:563-38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충현기도원 부흥회 개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충현기도원서
강사 김창인 목사, 신성종 목사, 유창무 목사

충현기도원 부흥회가 오는 8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경기도 광주군 쌍령리 소재 본 교회 기도원에서 개최된다.

충현교회 성도들의 영적 체험, 기도를 통한 심령 변화, 교회 성장과 부흥, 그리고 기도원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되는 이 부흥회에는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주제 아래, 새벽 집회로부터 낮공

부, 저녁 부흥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92년 마지막 더위를 충현기도원에서 피서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 성경 공부를 통한 신앙 성숙, 해이해진 믿음의 충진을 부흥회를 통하여 공급받는 귀한 기회인 만큼 온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특히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특정 찬양

대가 찬양을 담당하지 않고 부흥회에 참가하는 찬양대원들이 자원에서 연합 찬양대를 구성하여 찬양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찬양대원들의 적극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번 충현기도원 부흥회의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를 비롯하여 당회장 신성종 목사, 유창무 목사(기도원 담당)가 담당케 된다.

학원전도회
여름수련회 개최

학원전도회(회장 김단용 집사)는 오는 8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제3회 여름 수련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이며, 강사는 김해균 목사이고, 유, 초, 중, 고등학교의 전, 현직 교사들이 참가하게 된다.

폐지 모으기 운동 전개
수익금은 구제비로

구제위원회(위원장 박치민 장로)는 자원 재생의 국가 정책에 호응하고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교인들의 가정에 모아놓은 신문지를 교회에서 수거하고 이를 다시 제지회사에 팔아 그 수익금으로 구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온 교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신문지 수거 장소는 뱃바게장 한 구석에 마련되어 있다.

신성종 목사
한국일보 칼럼란에 기고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한국일보 "길"이란 제하의 칼럼을 앞으로 1년간 집필한다.

충현프리즘

①...벌리 바로셀로나에서 92년도 올림픽 소식이 주야로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해오고 있다.

우리 한국의健儿들이 최선을 다한 경기 모습이 TV화면을 비칠 때, 그 동안 피땀 흘려 갖고 닦은 기량이 나타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160여개국이 참가한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은 6위 정도의 결과를 거둬내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경기 결과를 볼 때 예상대로 순조롭게 경기가 운영되고 있다. 참 감사할 일이다.

특히 이번 경기

에 참가한 크리스찬 선수들의 활약상은 너무나 돋보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리고 최종 꿈인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대견스럽고, 불신자 시청자들에게는 간접 복음화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순간들이었다.

영광을 차지한 선수들이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선수들은 첫 마디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밤잠 자지 못하고 맹훈련을 설세없이 했

던 그들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살아 재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를 이번에 절실히 느꼈다. 가난의 설움도, 열악한 환경의 형편에서도 기도하며 열심히 훈련을 쌓았던 그들의 노고는 우리 하나님께 결코 배려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원해주고, 계속 기도해주어서 크리스찬의 자긍심을 키워주어야 하겠다.

②...어떤 성도가 어떤 딸을 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커서 누가 누구인 줄 잘 모르고 사담도 없고 서로 인사하는 일도 멎 적게 생각된다."고, 정말 그럴까? 물론

대형 교회인 만큼 교인 숫자도 그 어떤 교회보다 많다. 2,3백명 회집되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한 마디로 맘모스 교회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내가 먼저 인사하고, 사랑을 베풀 때 앞서 말한 생각들은 자연히 없어지고 오히려 상대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까이 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처음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런지?



▲ 8월 3일부터 4일 동안 개최된 밀알선교단의 사랑의 캠프

충현기도원
활성화위원회 구성

지난 8월 5일 소집된 정기당회에서 충현기도원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김방진 장로, 위원에 유창무 목사, 윤명식 장로, 박치민 장로, 이태규 장로, 김차생 장로, 노광현 장로, 이병학 장로, 하대선 장로를 임명하였다.

교경협의회 조찬기도회서
신성종 목사 설교

서울시 교경협의회가 8월 10일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 및 김효

은 서울시 경찰청장 부임 환영 조찬기도회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설교를 한다.

전화 통한 복음 전파

기독교인의 살아 있는 신앙 생활과 전도를 위하여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3분 설교를 통해 신성종 목사를 비롯한 목사들의 설교가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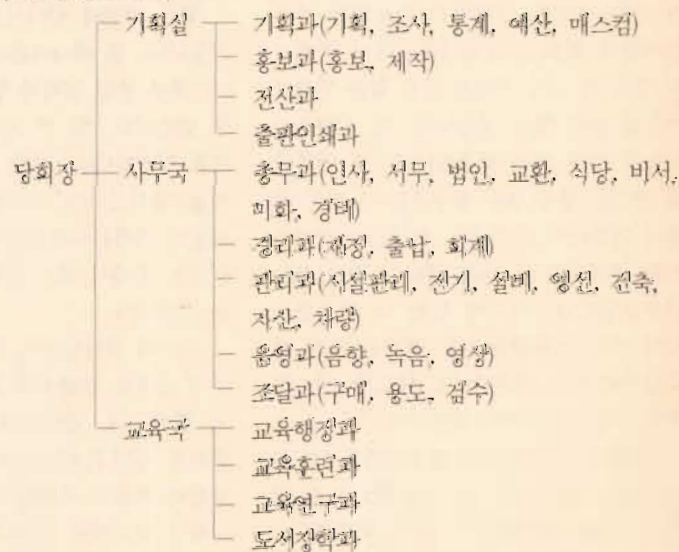
이용 방법은 700 - 8969번으로 전화를 걸고 1번을 누르면 3분 설교에 참여한 목사들의 이름과 고유번호가 안내된다.

교회 상근 조직 개편

지난 7월 12일 소집된 임시당회에서 교회의 모든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교회 상근 조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직원 인사 이동이 있었다. (8월 5일부)

- ◆ 인사 이동
- 기획실장 윤명식 장로
- ◆ 교회 상근 조직

- 사무국장 오전국 장로
- 교육국장 이종국 장로
- 사무국 관리과장 윤상언 집사
- 사무국 음역과장 김 신 집사
- 기획실 출판인쇄과장 정정주 집사
- 사무국 총무과장 김차철 집사
- 사무국 경리과장 심정례 집사



'92 세계 성령화 대성회

- 날짜: 8월 15일 ~ 16일
- 장소: 여의도광장
- 주제: "성령으로 세계를!"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일곱 가지 인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 . .”(제6:1~17)

요한계시록 6장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곱 인 재앙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곱 인 재앙인데 본문을 보면 일곱 인 재앙이 나오지 않고 여섯째 인 재앙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일곱번째 인 재앙은 사실은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제6:1)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인을 떼기까지는 그 안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제6:2)

본문에는 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먼저 첫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첫번째 나오는 흰 말에 관한 해석입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인지 사탄인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했습니다. 흰 말은 옛날에 보면 장군들이나 승리자가 탔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볼품없이 낮고 천한 모습이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흰 말을 탄 승리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활을 흔히 복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곱 인 재앙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복음 운동입니다. 이 해석은 조지 래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흰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은 인간의 가슴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각 심령들의 가슴을 향해 쏘는 복음입니다. 또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쓰는 면류관이고 성도가 쓰는 면류관은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흰 말을 탄 자를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우리말 성경에 너무 연연해서 그렇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빌리자면 “이기기 위해서 나가고 또 나가더라”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 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제6:3, 4)

두번째는 붉은 다른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붉은 색은 바로 피의 색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색은 전쟁을 상징하는 색으로 두번째 인을 떼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 중 하나가 무서운 전쟁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제6:5)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굶으면 얼굴이 검어지는데 검은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제6:8)

청황색 말은 온역, 즉 전염병을 말합니다. 청황색 말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이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굶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겔14:21)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네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7)는 말씀을 붙잡고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생기든, 기근이 생기든, 전쟁이 일어나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

로 셋김을 받은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위로를 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제6:12~14)

12절 이하에는 일월성신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으로 실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에 흑점이 생기는 등 점차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해가 검어진다고 했는데 해를 국기에 사용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중국인데 일본과 중국이 망한다고 해석합니다. 달이 피 같이 된다고 했는데 달을 가지고 국기를 만든 나라가 있는 데 아랍계통의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국기에 별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러한 나라들이 떨어지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제6:15~17)

이 세상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가 함께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중보자인 어린 양이 진노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부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니까? 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때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심장의 피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운 사람, 흰 두루마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되신 예수님에게 피한 자만이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중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색은 기근의 색입니다. 앞으로 기근의 재앙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너무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재앙은 물건이 귀해져서 생기는 기근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제6:5)

밀은 사람의 양식이고 보리는 말의 양식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값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밀 한 되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밀 한 되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보리 석 되는 말이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아무리 애를 써서 많이 벌어도 혼자서 먹을 것밖에는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 조항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했습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영적인 음식을 상징하지만, 육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은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만 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혼자 가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 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제6:9~11)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재단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흰 두루마기입니다. 이것은 의의 세마포를 뜻하며 거룩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안식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덜 찼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피

1. 북한의 기독교와 선교 현황 가. 북한의 새로운 바람

1980년 초반부터 북한에서 새로운 바람이 갑작스레 불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국 루터교 목사님 세 분을 초청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귀국 후 캘리포니아에서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 종교적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 소식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순진한 미국 목사님들이 약속 빠른 북한 정부가 행하는 그들의 선전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981년에 전 숭실대학교 총장 김성락 목사의 방북 도중 오찬에 동석한 김일성 주석이 "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라고 하여 유명한 말이 되어 그 이후 북한에서 많이 쓰여졌다.

나. 1983년과 1984년의 사건: 성경과 무곡 찬송가 발행

다음해인 1983년에 북한이 신약성경 1만부와 무곡 찬송가 1만부를 출판했다고 하는 발전된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매우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들은 다시 1984년에 구약성경을 발행하였고, 찬송가는 한국전쟁 때에 사용하였던 옛날 찬송가 사백부를 출판해냈다. 그 성경은 남한의 공동번역을 사용한 것으로 남한의 표기로 바꾼 것이었다. 그런데 그 북한의 성경은 고어로 쓰여진 남한 성경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성경과 찬송가를 출판한 북한의 정치적 목적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허가와 재정적 지원을 받아 출판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92 총현 북한선교세미나

제3강의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전략(1)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제1강의: 통일의 전망과 북한 선교의 향후 과제(이원설 교육부 교육심의회 회장)

제2강의: 남북 대화와 북한 선교(최문현 통일연구원 원장)

제3강의: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전략(김상복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성경과 찬송가는 중국에서 선 보인 한국어 성경보다는 1년 더 일찍 출간되었다. 그것은 1984년에 발간되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엄청난 발전적인 모습인 것이다.

다. 1985년 기독교 연맹의 중국 방문

1985년에 북한 교회 연합회에서 구성된 3명의 대표단은 중국의 교회와 신학교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체험들을 가졌다. 그 중국인들은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즐기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북한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발전들이다. 1986년 4월에 10명으로 구성된 미국의 NCC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그들은 3명의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었다. 그 대표단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북한에는 일반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북한을 대표할 만한 도시 주위에 오십여 개의 교회가 있으며, 그들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아파트에서 모인 가정 교회는 7명에서 10명으로 작은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네 가정 교회는 그곳을 방문하는 최근의 방문객들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라. 1989년 두 교회 건축

1989년 10월 장로교회당 한 곳과 천주교회당 한 곳이 평양의 서쪽과 동쪽의 도시 근교에 세워졌다. 11월 한 달 동안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문이 두 곳이나 열렸다. 이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었다. 40년 동안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며 기도자들이 끝없이 기도한 결과이었다. 장로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는 삼백 명이 참석할 수 있고, 천주교회는 백오십명의 좌석으로 만들어졌다. 그 장로교회는 정부의 육십만 달러의 차용금으로 세워졌다고 했다. 천주교회당은 사십만달러가 지출되었다. 교회의 강단 앞에는 십자가가 있었다. 그 성소에는 피아노도 있었다. 천주교회당은 장로교회당보다 더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다. 제단 뒤 벽 앞의 중앙에는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벽의 왼쪽 앞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사진, 오른쪽 앞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사진이 있었다. 그들은 북한에 팔백

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는데, 그들의 오십명 정도가 40대 초반의 평신도 지도자를 밑에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교회는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

이런 모습은 밖의 자유 세계에서는 놀랄 일은 아니었으나 북한의 그렇게 발전된 모습은 남한에게는 놀랄 만한 전혀 기대밖의 꿈 같은 일이었다.

마. 남북 교회 지도자 회의

남과 북의 교회 지도자들이 1986년 이후 스위스에서 국가의 통일을 위해 협의차 여러 차례 만났다. 북한의 대표는 7명이었고 남한의 대표는 11명이었다. 그 협의는 WCC에 의해서 지원되었다. 글리온에서 세 번(1986, 1988, 1990), 워싱턴에서 한 번(1989), 동경에서 한 번(1989) 만나 '통일 선언'과 '공동기도문'을 채택하고 1995년을 회년으로 삼고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1년 여름 남북 기독교 학자들이 모여 미국에서 민족주의를 논의했고 최근 북한 기독교 대표들이 미국을 한 달 동안 자유롭게 방문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자그마하나마 맛을 보게 되었다.

1989년의 워싱턴 DC와 도쿄 회의 등 계속적인 접촉은 통일로 향하는 작은 걸음들이 되고 있다.

바. 1992년 4월 빌리 그레함 평양 방문

사. 결언

1980년 이래, 북한은 종전보다 종교적 정책이 많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회를 그들 스스로 개최했고, 외국 나라들로부터 방문객을 기꺼이 수용했다. 그들은 초기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 대회 등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기회를 찾는 듯했다.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몇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은 그들이 종교적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둘째로, 장로교회와 천주교회를 세움으로써 상징적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록 소수이지만 불교와 천도교가 있다. 셋째, 이러한 종교적 그룹은 다음의 몇 가지를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부분적으로 제한된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1) 미군이 한국 땅에서 철수하고, (2) 핵무기의 철수, (3) 북한의 통일 정책 추진, (4) 고려연방제 수립 등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바람은 마치 60년대에 소련과 70년대에 중국을 휘몰아쳤던 것처럼 90년대에 북한 땅을 향해 불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은총을 통하여 칠천만이 하나되어 북한을 복음화하고 통일된 힘으로 세계를 향한 세계 선교 비전을 우리의 눈 앞에 펼쳐 보이시고 있는 순간이다. (계속)

장로칼럼

보이지 않는 전도



최대원 장로
(청년3부 부장)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군령이에서 건지셨고"(시 138:17) 같은 말씀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심판날에 영원 형벌의 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에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일생을 사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회로 모이고, 노방 전도, 군부대 전도, 교도소 전도를 계획하고, 부흥회를 열면서 한 생명이라도 애써 지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 분주한 것이다.

이러한 보이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도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전부를 한 제자로 드려야 할 우리는 자신의 표정, 행색, 언어 등을 포함해서 머리에서 발 끝까지 모두 전도의 도구로 써야 할 명령을 받고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전 1:31)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나 자신을 포함한 기독교 공동체가 아직도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모 신학대학의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쇠고랑을 차거나 자살을 한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람들이었고, 학내 분규가 잦은 학교들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걸고 있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가장 많다고 한다. 불신자들에게 의해 '교회 집사'라는 작자가..., '예수쟁이는 모두 다...' 하면서 성스러워야 할 성도(聖徒)라는 명칭이 매도당하는 풍토를 결코 이 사회가 악하다는 데 돌릴 수만은 없다고 본다. 그간 교회를 들락거리기만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축쟁이 같은 신자가 교회에 너무 득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현재 남한의 인구의 25퍼센트 정도가 개독교인이라고 한다. 물론 교회에 적만 두고 교회 출석을 연례 행사로 하는 축쟁이 신자들도 모두 포함되었겠지만, 그래도 네 사람이 모여면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과소비와 허세, 당비, 사기, 술 소비와 향락 산업이다. 근간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번창을 했으면 물건을 만들어야 할 인력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 나가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공정들이 문을 닫아야 했는가? 모르긴 몰라도 기독교인 전부라도 완전 금연을 결행하고, 나스웨 백성과같이 악한 길을 떠나고, 제 일터로 돌아간다면 오늘날 향락업소의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기업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본인은 운전을 하다가 간혹 물고기 형상을 뒷꽂무니에 붙힌 자동차를 발견한다. 그리고는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볼 때가 있다. 때때로 험오스러울 정도로 경적을 울리고, 과속하며, 위험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 기독교인 차주가 밀지 않는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주었는지 하고 위로할 때가 있다. 기독교인 입내 하고 간판까지 내걸고 온유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웠다.

교회 내에서도 믿음의 형제간에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처지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되면 무의식중에 돈 자랑, 직위 자랑, 지식 자랑, 믿음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혹시나 조금 덜 가진 형제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유발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보이며 많은 전도를 하고 있다고 자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중에 얼마나 많은 역전도(逆轉道)를 하고 있는지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때때로 거만하고 외식하는 행동과,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과 혀로, 독사의 독이 있는 입술(롬 3:13)로 주변의 이웃을 얼마나 시험에 들게 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을 가다가도 건네는 친절함, 기쁨이 담긴 평화로운 표정, 축복의 말, 양보하기, 질서지키기 등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직접 말을 건네지 않더라도 한 영혼이 감동되어 아버지께로 올 수 있음을 간파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질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음호 칼럼은 김차생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부모님과 남동생의 회유와 유혹을 뒤로 하고 92년 7월 27일 아침 7시 15분 부산을 향해 나의 첫발을 떼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지각할까봐 초조해 하던 그 순간, 그러나 정각 9시에 서울역에 도착, 하기 전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20일간 준비한 찬양과 율동을 시작한 지 10여분도 채 지나기 전, 서울역의 역무원들이 와서 우리의 찬양을 막았다. 당황한 대원들의 낭패한 표정, 부끄러움 등이 물려와 우리들은 어쩔 줄 몰랐다. 첫 시작부터 이번 하기전도여행의 어려움을 예고해주었다고나

할까? 할 수없이 개인 전도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피서가려고 준비한 밝은 옷차림들...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의 1절 가사가 생각났다. 분주한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가난하였다. 그들이 쌀쌀맞게 나의 말을 거절하며 듣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울고 싶었고 내가 너무 못나보였다.

열차 전도 역시 이번 하기전도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역무원의 화난 목소리.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쁜 것인지 되묻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를 격려해주시던 한 승객의 말씀이 큰 위안이 되었다. 짐

점 이 세상은 복음 전하는 것마저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강박해지고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날의 축호 전도 역시 많은 거절과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첫 만남에서 관계 형성을 하는 부분인데, 굳게 닫혀진 문을 두드리러 집주인을 불러보았으나 아무도 나와보지 않을 때의 그 황당함이란. 다른 집이나 가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였다. 어찌 이것이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는가?

셋째날 아침, 전날의 피곤으로 인해 새벽기도회 시간이 몹시 괴롭고 힘들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란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

이 날은 마산결핵원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작년에도 갔었던 곳

이어 내가 이 환자들과 같은 신세가 되거나 앓을까 하는 걱정으로 중환자들의 병실을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중환자들과의 접촉이 없이도 결핵병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였다. 그러므로 내가 환자들과 만나더라도, 병에서 보호해주실 것을 믿게 되었고, 담대함으로 환자들을 만나 복음을 간단히 전하고 찬양을 불렀다. 진심으로, 아주 진심으로.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다. 싸구려 복음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한 형제가 기도 세복을 내놓으며 기도하자고 했을 때 내 마음에 회개의 기도가 떠올랐다. 과연 내가 장기 자랑이나 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단 말인가? 과연 나의 마음속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어떤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처럼... 갑자기 힘이 났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찾기 시작했다.

▶ 독자의 글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하기전도여행을 다녀와서 -

황성우 학생(대학부 3학년)

집주인의 야속한 말을 뒤로 하고 돌아올 때의 내 마음은, 차라리 하기전도를 오지 말 것을 하는 후회감마저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나에게 위안을 준 한 자매가 있으니 그 자매 역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의 자녀였다. 수고한다고 하면서 사과를 깎아주던 그 자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구원받음을 믿느냐고 했을 때 그 자매는 그렇다고 대답해주었다. 어찌나 고마웠는지...

오후에 보훈병원엘 갔다. 새로 이사했던 터라 병원은 낯설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그곳에서 다리를 다친 한 형제를 만나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통한 구속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 형제는 너무나 열심히 잘 들어주었고 결국은

이지만 어느 병원과 달리 특수한 환자들이 와 있는 곳인지라 두렵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의 열정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곳이었다. 결핵으로 심신이 파곤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찬양의 소리는 뜨거웠고 아름다웠다. 그들보다 하나도 나를 것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족들을 주시며 전도할 수있는 환경을 주심을 새삼 감사드렸다. 특히 시원 40원을 찬양할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에서 뜨거운 무엇이 뭉클 끌어올랐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는 결핵이란 병이 무서워졌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병인데 혹시 전도하다가 내가 그 병을 얻게 되어 도



넷째날, 부산역 전도를 하였다. 서울역 전도 때 당한(?) 경험에 있는지라 또 전도를 못하게 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보트리가 와 비티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해가 짙게 내려와 있었고 주변은 시끄러워 우리의 찬양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길을 빨리 하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전퇴양난의 지경. 갑자기 전도

역사(驛舍) 한 구석에 조용히 한 자매를 만난 것은 그때였다. 조용한 미소를 머금은 자매에게 4영리에 기초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녀의 놀라는 표정이란... 영접 기도를 하고 그녀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권했고 그녀는 그러마 하고 약속했다. 할렐루야!

짧은 4일간의 전도를 통해 지금의 세상은 이미 복음이 무색해지는 시대이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시대임을 확인하였다. 과연 내년은 또 얼마나 박대와 거절을 당할런지...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게 해' 달라고 기도해본다.

● 구역예배 ●
(1992. 8. 14)

복음 전도와 시간

· 본문 : 마태복음 24장 3절~14절 · 찬송 : 276장, 168장
· 요절 :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도와 시간은 얼핏보면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는 영적인 측면이고 시간은 생활의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 전도를 말할 때, 항상 때(시간)와 결부시켜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이것은 복음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할애되어야 함을 잘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위한 시간 사용은 어떠해야 할까요?

1.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시간이 없어 전도하기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주님의 지상 대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전도 명령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적용하도록 힘쓰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자는 쓰고 남은 시간을 가지 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처음 것을 가장 귀하게 쓰기 위하여 전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 계획 속에 복음 전도가 과연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주님의 시간 사용의 핵심은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

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주님은 목표가 분명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막1:38)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에 투자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복음 전도와 직접 관련

예수님은 세상 끝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의 재림과 세상 끝의 확실한 징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주된 관심을 세상 끝의 징조에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꾸어주십니다. 사도 시대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드리며 전심 전력하였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나 깨나 오직 복음 전도에만 힘써야 합니다.

◆ 결론

세상의 모든 것(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하에 법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3:1)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때와 경륜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세상의 종말이 복음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복음 전도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적용 및 기도

1. 나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복음 전도가 최우선적인 것이 되게 하옵소서.
2.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게 하옵소서.